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초로키 모빌홈**

가격: 19만 / Cash (1Bed + Den) 위치: OC (비치& 링컨). 초로키 모빌홈 월 약 \$500 + 유틸리티 10년후 \$211 + 유틸리티

213.505.8577 Mr. Lee



전 당 포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아마존 인증 제품 사이에 짝퉁 섞여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서 '아마존의 선택' (Amazon's Choice)이란 라벨을 달고 팔리는 제품 가운데 가짜 상품이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서울경제' 에 따르면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8~12월 아마존에서 의류와 전자제품, 영양보충제 등 10대 인기 품목의 상위 제품을 포함한 5만4,400개 제품을 자체 조사했다. 이 가운데 2만7,100개가 아마존의 선택 라벨을 달고 있었고 그 대부분은 별 5개 만점에 4개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WSJ의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금지된 상품, 공식 안전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제품들도 많이 발견됐다. 일례로 FDA 승인을 받았다고 표시된 어린이용 악기에도 아마존의 선택이 붙어 있었지만 FDA는 장난감에 대해서는 어떤 승인도 하지 않는다. 또 1,600개 제품에서는 판매자가 아마존의 선택 라벨을 받기위해 제품 설명을 조작한 흔적이 발견됐다. 아울리 아마존

의 선택을 가장 많이 확보한 브랜드는 아마존 자체 브랜드 인 '아마존베이직스' 로540개에 달했다. '아마존의 선택' 라벨이 무수히 많은 합법적 제품들에 붙지만, 허위 주장을 하거나 판매자가 설명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들에 도 붙는 것이다.

일례로 아마존은 최근 몇 달 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아그라(남성 발기부전 치료제)가 함유됐다고 밝힌 성기 능 강화 음료에 이 라벨을 허락했다. 비아그라는 처방전을 받아야만 하는 약품이다. 애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5개의 스마트폰 충전기에도 아마존의 선택이 붙었다. 아마존은 이 라벨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수여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아마존에 입점한 판매업자들은 이 라벨을 탐낸다. 판매를 늘려주기 때문이다. 아마존 판매업자 브랜든 영은 아마존의 선택이 판매를 25% 또는 그 이상 늘려준다고 말했다. 식품 보충제를 판매하는 일리아 빌러브는 "아마존의 선택은 바로 공짜 광고" 라고 말했다.

미 연말 쇼핑 시즌 온라인 매출 급증

2019년 미국 연말 쇼핑시즌의 온라인 매출이 20%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 에 다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지난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까지 온라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8.8% 늘었다." 고 전했다. 반면 백화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출은 1.2% 증가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를 제외한 전체 소매 매출은 8천800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4% 늘어난 것 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감소하고 온 라인 쇼핑으로 몰리는 현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올해 들어 한층 뚜렷해졌다는 의미다.

올해 추수감사절(11월 28일)이 지난해(11월 22일)보다 6

일 늦은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추수감사절이 늦어지면서 연말 쇼핑 대목이 짧아진 탓에 미처 매장을 찾지 못한 쇼핑객들이 막바지 온라인 쇼핑으로 더욱 몰렸다는 것이다.

통상 미국의 연말 쇼핑열기는 추수감사절부터 블랙프라 이데이, 사이버먼데이를 거쳐 12월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이어진다. 특히 크리스마스 직전 토요일을 가리키는 '슈퍼 새터데이' 도 새로운 쇼핑 대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미 소매업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반영한다. 시장조사 업체 코어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문 닫은 소매 유통매장은 올해 9천300여개로 지난해보다 59% 급증했다. 이는 코어사이트가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로 가장 많은 규모다.

미국 11월 신규 주택 판매 반등

지난 11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반등 했다.

지난 24일 '뉴스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지난 1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 가한 71만9,000건이라고 밝혔다. 로이터가 집계 한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73만4,000건에는 못 미 쳤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1월 신규 주택 판매는 16.9% 증가했다. 10월 신규 주택 판매는 73만3,000건에 서 71만건으로 하향 조정됐다.

11월 중 거래된 신규 주택가격의 중간값은 1년 전보다 7.2% 상승한 33만800달리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주택 판매는 20만~40만 달러 범위에 집중됐으며 20만 달러 이하에서 판매된 주택은 전체 거래량의 10%에 불과했다.

북동부와 서부 지역의 주택 거래가 활발했고 전체 거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남부의 신규 주택 판매는 부진했다. 남부 지역의 신규 주택 판매가 4.1% 감소했으며 북동부는 52.4% 급증했다. 서부지역은 7.5% 증가했다. 중서부는 전월과 같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019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지난해 수년 간 최고치를 기록한 모기지 금리를 끌어내린 뒤 주택시장은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해당월 달 단독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 건설업자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12월 주택시장지수도 지난 1999년 6월 이후 약 20년 만의 최고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지대와 인건비로 주택 건설업자들이 고가 주택에 집중하면서 정작 많은 수요자들이 필 요로 하는 가격대의 주택에서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